

미나리, 골든글로브 최우수 외국어영화상 美 아카데미상 수상 희망 쫓다

4월 26일 열리는 아카데미상 시상식의 전초전 11일 英 아카데미서도 7개 부문 2차 후보 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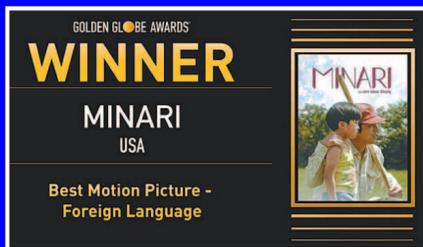
리가 작품성을 인정받는 순간이기도 했다. 이에 영화의 주역들은 4월 미국 아카데미상 후보 및 수상이라는 또 다른 희망을 갖게 됐다.

“내가 기도했어(I prayed)! 기도했어!”

1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영화 ‘미나리’가 미국 골든글로브 최우수 외국어영화상 수상작으로 호명됐다. 연출자 정이삭 감독의 딸이 아빠의 품에 안기며 외쳤다. 감독은 상기된 표정으로 “딸이 영화를 만든 이유”라고 말했다. ‘미나리’가 작품성을 인정받는 순간이기도 했다. 이에 영화의 주역들은 4월 미국 아카데미상 후보 및 수상이라는 또 다른 희망을 갖게 됐다.

●논란과 비판의 힘을 업고

‘미나리’는 이날 미국 LA 베벌리힐트호텔에서 비대면으로 열린 제78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외국어영화상을 받았다.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가 주관한 시상식에서 미국·프랑스 합작 ‘투 오브 어스’, 이탈리아의 ‘라이프 어헤드’, 덴



영화 ‘미나리’가 1일(한국시간) 미국 골든글로브 최우수 외국어영화상을 품에 안았다. 사진은 이날 골든글로브 공식 사이트에 오른 ‘미나리’의 수상 공지. 사진제공 | 편씨네마

마크의 ‘어나더 라운드’ 등과 경쟁했다. ‘미나리’는 1980년대 미국 이민 한인가족의 이야기. 브

래드 피트의 제작사 플랜B가 제작하고, 현지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정이삭 감독이 연출한 미국영화이다. 하지만 대사 비중의 절반 이상이 한국어여서 영어가 아닐 경우 외국어영화상으로 분류하는 골든글로브 규정에 묶였다.

앞서 이 규정을 비판한 유력 언론들은 다시 골든글로브에 날을 세웠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영화임에도 외국어영화상 부문에만 올라 작품상 경쟁을 하지 못했다”고 썼다. LA타임스도 ‘미나리’가 “외국어영화상을 받았다. 미국영화이다”고 꼬집었다. “딸이 영화를 만든 이유”라고 말한 정 감독은 이를 의식한 듯 이날 ‘미나리’가 “그들만의 언어로 말하려 노력하는 가족의 이야기이다”면서 “영어나 어떤 외국어보다 깊은 진심의 언어이다. 서로가 이 사랑의 언어로 말하는 법을 배우길 바란다. 특히 올해는”이라고 소감을 남겼다.

▶ 11면으로 이어집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스포츠동아

2021년 3월 2일 화요일
www.sportsdonga.com



3.1절 데뷔전 홍명보 감독, 5-0 “만세”



울산 현대가 1일 울산수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1’ 1라운드 강원FC와 홈경기에서 5-0 대승을 거뒀다. 전반 27분 터진 윤빛가람(오른쪽)의 프리킥 선제골이 신호탄이었다. K리그 사령탑 데뷔전을 치른 홍명보 감독으로서 기분 좋은 출발이다. 사진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울산 윤빛가람 결승골 시작으로 김기희·이동준·김인성 릴레이골

강원 주장 임제민 퇴장, 수적 열세에 와르르 첫 판 잡은 전북, 서울 상대 11경기 연속 무패 수원FC 양동현, 대구상대로 시즌 1호 PK골



특별한 주말, 행복한 연휴였다. ‘하나원큐 K리그1 2021’이 2월 27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진 전북 현대-FC서울의 K리그1(부) 공식 개막전(전북 2-0 승)을 시작으로 새 시즌 험난 레이스에 돌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무관중으로 뒤늦게 출발한 지난해와 달리 올 시즌은 계획대로 정상 개막했고, 무엇보다 축구팬들과 호흡할 수 있어 더 의미가 컸다. 쌀쌀한 날씨와 따스한 봄기운이 공존한 가운데 전국 각 경기장에서 희망찬 광파를 울린 조족 그라운드와 드라마를 지켜본 이들의 마음은 모두 같았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처럼 팬들과 함께하는 라운드가 지속됐으면 한다. 시즌을 무사히 완주하길 바란다.”

황금연휴의 끝자락인 삼일절(3월 1일), 3943명의 팬들이 찾은 울산수경기장에선 골 퍼레이드가 펼쳐졌다. 울산 현대 홍명보 감독이 이영표 대표이사가 취임한 강원FC와 홈 개막전을 5-0 대승으로 장식하며 성공적인 K리그 사령탑 데뷔전을 치렀다. A대표팀과 각급 연령별 대표팀에 이어 황재우(중국)를 지휘한 뒤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로 활약한 홍 감독에게 K리그는 첫 도전이다.

“설렌다. 내 축구인생에 아주 큰 의미의 경기가 될 것”이라던 홍 감독의 기대가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해외진출을 노리다 잔류를 결정한 윤빛가람의 전반 27분 프리킥 선제골이 결승포가 됐는데, 지난해까지

강원에서 뛰다 울산으로 이적한 김지현이 프리킥 찬스를 얻어내 더 흥미로웠다.

2012년 5월(2-1 승) 이후 울산과 17차례 대결에서 3무14패의 절대 열세에 놓였던 강원은 징크스 탈출을 노렸으나 후반 초반 주장 임제민의 퇴장(K리그1 시즌 1호)으로 수적 열세에 몰렸고, 김기희(후반 8분)~이동준(11분)~김인성(18분·25분)에게 내리 실점하며 무너졌다.

경기 후 홍 감독은 “19년만의 K리그 복귀무대였으나 느낌이 참 따스했다. 유니폼이 아닌 정장을 입었어도 어색하지 않았다”며 활짝 웃었다.

새 시즌 K리그의 출발을 알린 득점포는 자책골이었다. 전북과 원정경기 후반 30분 서울 김원균이 상대의 프리킥을 머리로 건어내려다 자신의 골문을 갈랐다. 자책골로 시즌 첫 골이 기록된 것은 프로축구 출범 후 최초다. 후반 추가시간에는 전북 모 바로우가 김보경의 도움을 받은 썬기골을 터트렸다. K리그1 시즌 첫 필드골과 어시스트였다. 2-0 완승을 거둔 전북은 서울전 최근 11경기 연속 무패(9승2무)의 우위를 이어가며 K리그1 5연패, 통산 9번째 우승을 향한 시동을 걸었다.

K리그1 시즌 첫 페널티킥(PK) 골은 27일 DGB대구은행파크에서 나왔다. 겨울이적시장에서 폭풍영입으로 눈길을 끈 ‘승격팀’ 수원FC의 양동현이 전반 28분 오른발 킥으로 골망을 출렁였다. 반격에 나선 대구FC는 PK 파울을 범한 중앙수비수 김진혁의 후반 31분 동점골로 승점 1을 챙겼다.

한편 올 시즌 K리그 전체 1호 골이자 K리그2(2부) 첫 골은 27일 경남FC와 원정경기를 치른 FC안양 심동운이 전반 30분 기록했고, 첫 경고는 이 경기 전반 12분 팔꿈치로 상대를 가격한 안양 정준연이 받았다.

▶ 관련기사 3면

울산 |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CJ CHEILJEDANG

남자의 건강기능식품

CJ 전립소

전립선 건강은 물론, 정상적인 면역기능, 항산화, 에너지 활력까지! 100% 미국산 소팔메토

- 기능성 원료인 소팔메토의 인체시험 결과 테스토스테론(남성호르몬) 증가, 야뇨/소변속도 개선, 남성 삶의 질 개선 확인
- 국내 최초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기능성 인정
- 미국 FDA 안전성 기준 충족 프리미엄 원료 사용

Returnup 리턴업

전립소 소팔메토 파워

10년 연속 판매 1위

NO. 1

소팔메토 열매추출물, 비타민 B군 4종, 셀레늄, 아연

건강기능식품 30g(500mg X 60캡슐)

Returnup 리턴업

전립소 소팔메토 파워

1회분량 당 함유량: 소팔메토 1000mg, 비타민 B1 1.5mg, 비타민 B2 1.5mg, 비타민 B6 1.5mg, 셀레늄 50mcg, 아연 1.5mg

1일 1회,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CJ 전립소 소팔메토 파워

벤케어파워 옥타코사놀 3개월분 증정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80-722-9988